

## 정주교, 양기창, 이승열, 엄교수, 엄강민 부위원장 당선

12월 10~12일 노조 임원선거 2차 투표 ... “중집·중선관위, 여성 부위원장 보충선거 일정 확정할 것”



▲ (왼쪽부터) 정주교, 양기창, 이승열, 엄교수, 엄강민 부위원장 당선자

금속노조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노조 11기 임원선거 2차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한 명도 당선을 확정하지 못한 일반 명부 부위원장 다섯 명을 선출했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철)는 12월 13일 11기 일반 명부 부위원장 2차 투표에 진출한 정주교, 엄교수, 양기창, 이승열, 엄강민(기호순) 후보 모두 과반 이상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노조 재적 조합원 17만5천494명 가운데 12만2천290명이 투표해 투표율 69.68%를 기록했다.

### 정주교, 양기창, 이승열 부위원장 당선

다섯 명 선출에 열 명이 출마한 일반명부 부위원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득표 순서대로 기호 1번 정주교(한국지엠지부 부평), 기호 5번 양기창(기아차지부 광주지회), 기호 8번 이승열(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기호 2번 엄교수(현대차지부 통합사업부), 기호 10번 엄강민(현대차지부 정비위원회) 후보 다섯 명이 2차 투표에 올랐다.

부위원장 2차 투표는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했다. 개표 결과, 정주교 후보가 가장 많은 9만8천20표(찬성률 80.15%)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양기창 후보는 9만7천211표(찬성률 79.49%), 이승열 후보는 9만6천18표(78.52%), 엄교수 후보는 9만4천937표(찬성률 77.63%), 엄강민 후보는 9만4천923표(찬성률 77.62%)로 당선해 금속노조 11기 부위원장으로 일한다.

### 엄교수, 엄강민 부위원장 당선

노조 박수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조 11기 위원장-수석 부위원장-사무처장, 비정규직당과 일반 명부 부위원장 선거를 무사히 잘 마쳤다”라며 “금속노조 18만 조합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조합과 지부, 각 사업장에서 선거 관리업무를 맡아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애쓰신 동지들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격려했다.

박수철 중선관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출마자가 없어 여성 할당 부위원장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라며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선관위가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보충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지욱 경남, 최재소 경주, 윤장혁 울산지부장 당선

12월 10~12일 지부 임원선거 2차 투표 ... 광주전남, 운영생·고미경·오미령 부지부장 선출



▲ (시계방향으로) 홍지욱 경남지부장, 최재소 경주지부장, 윤장혁 울산지부장 오미령, 고미경, 윤영생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당선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경주지부, 울산지부가 12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지부 임원선거 투표를 벌여 11기 지부장-수석지부장-사무국장을 선출했다. 광주전남지부는 2차 투표를 통해 부지부장 세 명을 선출했다. 금속노조 각 지부 11기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선거 2차 투표 결과 홍지욱(개별)-김일식(현대로템지회)-김정철(개별) 후보 조가 지부 조합원 7천217명(득표율 81.12%)

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 라고 12월 12일 공고했다.

## 홍지욱 경남지부장 당선

두 개 후보 조가 출마한 노조 경남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치른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 조가 없었다. 최고 득표를 한 홍지욱 후보 조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했다. 지부 재적조합원 1만3천616명 중 8천 897명이 참여해 투표율

65.34%를 기록했다.

10기에 이어 11기 경남지부장으로 일할 홍지욱 조합원은 대림자동차 해고자로 노조 7, 8기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절박하다!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라’는 구호를 내세운 홍지욱 당선자는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소통 활성화 등 경남지부 조직 운영 혁신 ▲조합원 5만 시대 설계 등을 약속했다.

노조 경남지부 김일식 수석 부지부장 당선자는 현대로템 지회 5기 부지회장과 경남지부 6기 부지부장으로 활동했

다. 한양공영 파업투쟁으로 해고와 구속을 겪은 김정철 사무국장 당선자는 현재 지부 사무국장이며,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와 노조 경남지부에서 노동안전사업을 도맡아 왔다.

**최재소 경주지부장 당선**

금속노조 경주지부 새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에 최재소(다스지회)-임진홍(에코플라스틱지회)-유영훈(디에스시지회) 후보 조가 찬성 73.11%(2천230표)로 뽑혔다. 두 개 후보 조 경선으로 진행된 지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유권자 3천734명 중 3천50명이 투표, 최종 투표율은 81.68%였다.

현재 경주지부 다스지회장인 최재소 당선자는 지부 6기 조직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노조 경주지부 임진홍 수석부지부장 당선자는 에코플라스틱지회 8기와 9기 사무장을 역임했다. 유영훈 사무국장 당선자는 현재 지부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최재소 경주지부장 당선자는 ‘원칙과 믿음, 희망과 연대, 당당한 경주지부’를 제시하며 출마했다. 총고용 안정과 함께 ▲미래산업 대응 ▲조직확대, 복수노조 사업장 재건 ▲투명한 지부 집행 등을 약속했다.

**윤장혁 울산지부장 당선**

금속노조 울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3일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울산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에서 윤장혁-오흔도-고은아 후보 조가 당선됐다” 라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지회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지부 임원선거 1차 투표 기간을 노조 임원선거 2차 투표 일정으로 미뤘다.

노조 울산지부 11기 임원선거는 지부 재적 조합원 4천581명 가운데 3천689명이 투표해 투표율 80.53%를 기록했다. 단독 출마 찬반투표에서 윤장혁 후보 조가 93.01%(3천431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부지부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했다. 부지부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김성중(서연이화지회), 기호 2번 황승연(세종지회) 조합원 두 명 모두 각각 찬성률 90.62%(3천343표)와 91%(3천357표)로 당선됐다.

윤장혁 울산지부장 당선자는 고강알루미늄지회 1~3기 지회장, 지부 9~10기 수석부지부장을 역임했다. ‘새 시대 강력한 실천과 투쟁, 세상을 주도하라’를 선거 주요 구호로 내건 윤장혁 당선자는 ▲새로운 민주노조 운동 ▲조합원 1만 시대 ▲구조조정 분쇄 ▲자주통일, 정치세력화 ▲교육 체계 혁신 등의 공약을

을 제시했다.

노조 울산지부 오흔도 수석부지부장 당선자는 한국프랜지지회 4기 부지회장, 7기 수석부지회장, 9기 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지부 사무국장 겸 민주노총 대의원을 맡은 고은아 사무국장 당선자는 지부 7~9기 교육·선전부장으로 일했다.

**광주전남지부 운영생, 고미경, 오미령 부지부장 선출**

광주전남지부 지부 임원선거에 부지부장 후보 여섯 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한 부지부장 후보자가 없었다. 득표 순서대로 기호 2번 고미경(앰코지회), 기호 3번 오미령(광주지역금속지회), 기호 1번 운영생(전남서남지역지회) 후보 등 세 명이 2차 투표에 진출했다.

12월 13일 노조 광주전남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부지부장 2차 투표에 재적 조합원 9천929명 중 6천401명(투표율 64.47%)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 선관위는 “운영생 조합원이 5천165표(득표율 80.69%), 고미경 조합원이 5천172표(득표율 80.80%), 오미령 조합원이 4천671표(득표율 72.97%)를 받아 세 명 모두 부지부장에 당선됐다” 라고 공고했다.